

“전 미주 한인교회 연합해 힘 하나로 모을 것!”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21회 총회, 총회장으로 민승기 목사 선출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된 미기총 제21회 정기총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기총)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새생명교회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으로 민승기 목사를 선출했다.

미기총은 정기총회를 통해 △미주 지역 교계 일치와 연합 △한인 이민 교회 정체성 확립 △2세 지도자 양성 △원로 목회자 노후 대책 마련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결집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 전

개 등을 결의했다. 신임 임원은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 △지역 공동회장으로 이대우 목사(동부), 진유철 목사(서부), 이성철 목사(중부) 이재선 목사(남부), △사무총장 이재택 목사 △지역 총무 샘 신

목사 △서기 채영일 목사 △부서기 조형수 목사 △회계 서준석 장로 △감사 심평중 목사 등으로 구성됐다. 신임 총회장 민승기 목사는 “이제 장년이 된 미기총은 미주 교계 화합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교

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미주 한인 개신교를 대표하는 연합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 2면에 계속]

미 전국 한인교회수 3,514개, 캘리포니아 1,008개로 가장 많아

미국 10대 주 한인교회 수		
순위	주	한인교회 수
1	CA	1,008
2	NY	280
3	GA	194
4	TX	189
5	IL	172
6	WA	166
7	NJ	157
8	VA	154
9	MD	129
10	FL	111
	기타	954
	합계	3,514

비영리재단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이사장 박희민 목사)은 지난달 기준으로 “미 전국 한인 교회 수가 모두 3,51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 별 한인교회수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가 1,008개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이 2위로 280개, 3위 조지아가 194개, 4위 텍사스가 189개, 5위 일리노이가 172개 순이었다. 6위는 워싱턴주가 166개, 7위 뉴저지 157개, 8위 버지니아 154개, 9위 메릴랜드 129개, 10위 플로리다 111개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가장 적은 주로는 메인, 몬타나, 와이오밍에

각 3개의 한인교회가 있으며,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 다코타, 뉴스 다코타, 버몬트에 각 2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다.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교회당 한인 인구수는 플로리다가 한인 259명당 1개, 이어 하와이가 한인 281명당 1개, 조지아가 한인 283명당 1개 교회로 한인교회 포화도가 높은 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한인교회 개척이 필요한 주도 알 수 있었다. 미네소타주는 한인 인구 1,168명당 1개 교회가 있었으며, 미시간주가 한인 921명당 1개 교회, 뉴저지가 한인 616명당 1개 교회가 있어, 한인 인구 대비 비교적 한인 교회가

적은 주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인 인구가 46만 6,313명으로 미국 내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한인 인구 463명당 1개의 한인 교회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내 한인교회가 소속된 교단으로는 미 남침례회(SBC)가 16%로 가장 많았고,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11%로 그 뒤를 이었으며, 미주합동총회와 미국 장로교(PCUSA), 연합감리교(UMC)가 각 8%로 한인교회가 많이 소속된 교단으로 나타났다.

KCMUSA는 “미국 내 한인교회가 4천 개가 넘는다고 알려졌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었고, 한국인들의 이민 감소와 이민 2,3세대의 교회 연관성 저하로 인해 한인교회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한인교회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조사를 통해 한인교회가 많이 모인 지역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동욱 기자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Rev. Sunja Kang Memorial Lectureship



“당신의 교회는 안전 하십니까?” 법과 교회 세미나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막강한 힘과 빠른 속도로 엄습해 옵니다. 물론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에서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생소한 주제를 통해 “법과 신앙”, “법과 목회”, 그리고 “법과 전도” 등 현재 교회와 목회에 당면한 법적인 현안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오는 9월 9일(월)-10일(화) 양일간 “법과 교회”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Randy Sung Ju

Michael Peffer, Esq.

Brad Dacus, Esq.

일시: 9월9일(월)-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장소: Garden Suite Hotel Banquet Room
강사: 브래드 대쿠스 대표(태평양법률협회 대표), 주성철 목사(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인 디렉터), 마이클 페퍼 변호사(태평양 법률협회 Santa Ana Office 상임 변호사), 대상: 목회자(목사, 전도사), 교회마다 70명 선착순 등록비: \$30(교재, 점심식사 제공)
강의일정: 9월 제1강의: 캘리포니아주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권리(강사: 주성철 목사) 제2강의: 문제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 안전을 위한 방해자 및 출석관리(강사: 마이클 페퍼 변호사)
10일 제3강의: 목사, 교회 그리고 개인의 권익(강사: 브래드 대쿠스 대표) 제4강의: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강사: 주성철 목사)
등록문의: (661)618-9392, (213)407-1710

주최: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 AZUSA PACIFIC UNIVERSITY

[1면 미기총 "전 미주 한인교회 연합해 힘 하나로 모을 것!" 이어]



미기총 제21회 정기총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계 지도자들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새생명교회에서 진행된 미기총 제21회 정기총회



총회장 민승기 목사

올해 미기총 정기총회에는 세계 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계기총) 대표

회장 최낙신 목사를 비롯해,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일본선교사협회 회장 이상렬 목사 등 교계 연합기구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기총과 협력을 다졌다. 또 미기총 1대 증경회장인 박희소 목사를 비롯해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 한기형 목사 등 남가주 지역 증경회장들이 참석해 미기총 신임위원단에 힘을 실었다.

세계기총 최낙신 목사는 "21세기 교회는 세속 철학과 사상, 문화로부터 무신론적 도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부정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모든 교회가 인본주의적 세속사회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

해 일치를 이루고, 특별히 미주 지역 모든 한인교회가 상호 교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역동적으로 선포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인 권태진 목사는 "한국교회 연합은 미주 한인 교계 최대의 연합 기관인 미기총과 2012년 맺은 선교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적 과제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을 위한 특별 기도를 당부한 권태진 목사는 "지금 한국은 기독교를 대적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 금지법 위헌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풍조가 날로 확산되는 등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

고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위기에서 구할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 없기에, 미주 지역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조국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총회는 개회예배와 정기총회, △ 통일선교전략(김요한 목사) △ 난민 선교 전략(무슬림 선교 장세균 선교사) △ 21세기 영적 전쟁(TVNEXT 사라 김, 김태오 목사)을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한 기도회, 미기총 및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계기총) 간담회,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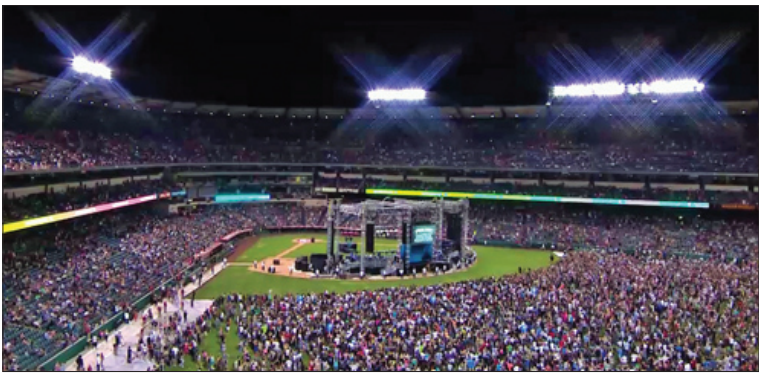
한편 신임 총회장 민승기 목사는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원과 위

싱턴 침례대학에서 공부한 침례교 목회자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고 5년 전부터 미기총 사역에 동참해 왔다.

미주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미기총은 미주 한인교회의 일치, 화합, 선교, 봉사, 연합 사역을 위해 21년 전에 태동해 지금까지 미주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대표하는 기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 전역의 125개 교인들이 함께 모여 미주 한인교회 11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각 지역 교회의 지난 20년 역사를 정리해 "미기총 20년 발자취 이야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제30회 '하비스트 크루세이드'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서 개최



2014년 하비스트 크루세이드 컨퍼런스가 열렸던 있는 애너하임 스타디움.

복음주의자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30회 하비스트 크루세이드(Harvest Crusade)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위치한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을 이끌고 있는 그렉 로리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30년에 걸친 복음주의의 변천사와 이번 행사에 관해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비스트 크루세이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도집회로 지난 30년 동안 약 50만 명의 결신자를 배출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현장 예배 음악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로리 목사에 따르면, 올해는 래퍼 레크래, 제레미 캠프, 크리스 탐린, 킹 & 컨트리, 뉴스보이즈(News boys)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음악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의 인생

을 뒤로 하고, 현재 부인과 함께 '가스펠 미니스트리'(Gospel ministry)를 운영 중인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대릴 스트로베리 씨의 간증 순서도 준비돼 있다.

강혜진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T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고봉준 목사 초청 특별간증집회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고봉준 목사,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키지 못할 죄인은 없다고..."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간증집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집회일정

- 9월 6일(금) PM 8:30 **올림픽 장로 교회** (담임 정장수 목사)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9월 7일(토) AM 6:00 **기쁜 우리 교회** (담임 김경진 목사)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 9월 8일(주일) AM 11:00 **엘에이 선교 교회** (담임 장태원 목사)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 9월 11일(수) PM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담임 엘리야 김 목사)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 9월 15일(주일) AM 11:00 **엘에이 씨티 교회** (담임 씨니 김 목사)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고봉준 목사

약력

사마리아교정신교회 대표
아름길사랑교회 협동목사
국내외 부흥회 2000회 이상 인도
법무부 교정위원
의정부교도소 종교위원

집회문의 T:(213)739-0403



양 커뮤니티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라크마 윤임상 음악감독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연주와 합창의 진수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 2019 라크마 여름콘서트

한인, 유대인 커뮤니티 '우정의 하모니' 로 하나 돼

라크마(LAKMA 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가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심포니 오케스트라(Los Angeles Jewish Symphony (LAJS)와 "우정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9 LAKMA 여름 콘서트가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17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열린 콘서트에 참석한 한인 과 유대인 1천6백여 명은 '평화와 우정'으로 한데 어우러져 온 세상에 평화와 회복이 가득하길 염원했다. 디즈니 홀에서 처음 연주된 서곡

"아리랑 판타지"부터 마지막 무대 베토벤 "Ode to Joy"가 마칠 때까지 관객들은 숨죽이며 전곡을 감상했고, 가슴 벅찬 환희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특히 지난해 3.1절을 기념해 만들어진 미주에서 처음 연주된 칸타타 한국의 혼(Spirit of Korea)은 흥(興)과 한(恨), 희(希)를 주제로 한국의 열과 문화적 위상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흥을 주제로 한 화려한 복 연주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으며, 대금과 판소리를 통해 표현한 한국인의 한은 절제된 성숙미

로 전쟁과 핍박으로 신음했던 유대인의 공감대를 얻기에 충분했다. 이어 양 커뮤니티 합창단이 희망을 주제로 고비마다 역경을 이겨낸 힘찬 기백과 미래를 향한 의지를 노래하며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라크마는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며 마음의 손을 맞잡고 협력의 의지를 다지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감당했다.

윤임상 LAKMA 음악감독은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매우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민족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화합의 시간이었다"며 "세대와 인종을 넘어 함께 평화를 노래하면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원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유대인 심포니 예술감독 노린 그린은 "한인 커뮤니티와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는 매우 특별한 자리를 갖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 커뮤니티가 하나 되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돕

는다"는 취지로 2010년 결성된 라크마(LAKMA)는 지난 9년 동안 매해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다양한 주제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해 왔으며, 창단 이후 매해 장학사업을 펼쳐 클래식 음악과 사회에 큰 기여를 해왔다.

또 타민족과 우정의 하모니를 도모하는 일로 중국, 대만 등 타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매해 겨울에는 음악 인재들을 발굴해 장학금과 오케스트라 협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전 세계 한인 선교사 쉼터 'LA GCC' 건립 시급

"GCC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서로의 사역 보고를 통해 선교 협력을 도모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글로리 크리스찬 센터(Glory Christian Center 대표 김미선 교수, 이하 GCC)가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LA에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한인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가진 김미선 대표는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한국 혹은 기타 지역을 방문할 때, 미국 LA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교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선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규모가 큰 선교 단체나 혹은 대형 교회나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선교관이 있지만, 그 외에 후원을 받지 못한 선교사들은 마땅히 갈 곳도, 쉼 곳도 찾기 어렵다"며 "GCC는 초교파로 운영하며 온 삶을 드러 헌신하는 현장 선교사들이 안식과 쉼을 얻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GCC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



글로리 크리스찬 센터(GCC) 건립과 후원음악회를 설명하는 김미선 교수

주일) 오후 5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개최한다.

드림투드림(Dream to Dream)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출연진 모두가 재능기부로 참여할 정도로 선교사들을 위한 센터 건립에 힘을 합쳤다.

콘서트는 석기향 박사의 오르간 솔로를 비롯해, 그레이스 홍의 하프 솔로, 권대술의 바이올린 솔로, 오위영 목사의 테너 솔로, 크리스티나 천의 마림바 연주, 오렌지 미션콰이어의 합창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

될 예정이다. 김미선 대표는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을 위한 일에, 뜻있는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GCC 후원에 대한 문의는 : 213-369-3861(USA) 010-2638-5127(Korea) Kakao Talk ID : pilgrim01 이메일 : genesismusic2000@gmail.com 으로 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후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기쁜우리교회 영화 <교회오빠> 단체 관람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17일 마당물 CGV에서 이웃을 초청해 220여 명이 영화 "교회 오빠"를 단체 관람했다.

이날 영화를 감상한 후 눈시울을 붉힌 교인들은 "이관희 집사의 고난과 죽음을 대처하는 자세와 그의 말들, 행동들을 보며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기쁜우리교회는 "읍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관희 집사를 통

해 상처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치유와 위로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반추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호평했다.

한편 영화 '교회오빠'는 KBS 스페셜 '삶: 교회오빠'를 통해 전 국민을 울렸던 고(故) 이관희 집사의 신앙 투병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을 통해 삶과 죽음을 마주한 이관희 집사 가족의 믿음의 이야기를 담아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인규 기자



기쁜우리교회 영화 <교회오빠> 단체 관람

35주년 1984-2019

하나님과 함께

감사축제

좋은마을교회(구, 삼성장로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교회사역 35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5주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온교우들과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 떠난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서로 마음을 열고 섬기는 교회에서 더욱 아름다운 섬김을 격려하며, 축복해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잠시라도 나누길 위해 준비한 축제입니다. 진심을 담아 뜨거운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초청인
신원규 목사, 김동진 장로, 전병일 장로, 황도성 장로, 김수성 장로, 김이집 장로, 선계원 장로, 조관국 장로, 이봉중 장로, 한기승 장로

- 창립 35주년 기념 축하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11시45분
장소: 좋은마을교회
특별간증: Harold Potter 변호사 / Peter Travis 집사 (무릎 아래가 없고 로봇다리로 장애를 이기고 선교로 삶을 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 H.K.W.(국제고아후원) 8년차 이사회 대회**
일시: 2019년 9월 7일(토) 오후 7시
장소: 좋은마을교회
- G.M.G(영성사역훈련) 28년차 감사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11시45분
- P.H.(3세계현지목회자훈련) 7년차 감사예배**
일시: 2019년 9월 8일(주일) 오전11시45분

좋은마을교회
The Good Village Church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문의전화 (714) 646 - 9259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3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 총회”를 다녀와서

줄여서 '미기총'이라고도 한다. 매년 총회를 미주 전역을 돌면서 하는 데 올해가 21차가 되었다. 필자는 -엄밀히 말하면 필자가 속한 선교단체는- 16차 때부터 총대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미기총에 가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름에서도 표현한 대로 미주 안에 있는 한인 기독교 단체 즉 각 지역의 교회협의회 대표, 교단 대표, 기독교단체장, 선교단체장 등으로 어우러진 기독교를 총망라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주 한인 기독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 취지에 동의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서로 아름답게 연합하는 장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뜻에 우리 선교단체도 협력하는 결정을 하였고 우리 선교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미주 안에서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할 주력 사역 속에는 한반도 미래 대책, 교계의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 세계선교의 교두보적 정책 수립, 은퇴 원로목회자 공동 노후대책 등 연합의 힘으로만이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세워 나가자는 결의가 있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일꾼들이 수고하며 미기총의 21년을 달려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연합과 통합적인 일들이 좋은 취지이고 모두가 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공감할 수 있었지만 미주 교회의 교세 약화, 재정적 어려움, 모이는 어려움 그리고 헌신도의 결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그 기세가 시들어 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던 차에 21차 총회가 미주 서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개최되었고, 그간 오렌지카운티 교회 협의회 회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또한 갈보리 새생명 교회를 건강하게 목회해 온 성실한 교계 지도자로서의 평을 받고 있던 민승기 목사가 21대 미기총 회장에 추대되었다. 이에 서부를 중심으로 미기총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음을 느낀다. 어

렵고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교계가 연합해야 하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반기독교적 현상에 대하여 교계가 진리 수호의 목소리를 함께 만들어 내야 할 때임을 믿는다. 그 일을 위한 사명감으로 미기총이 탄생된 것이므로 이 연합회에서 수고하는 총회장 및 임원들, 그리고 18개의 분과 위원회 담당자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선하고 아름다운 교계 연합의 당면과제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자기 이름의 명예 구축에 전전하는 자가 없길 바란다. 허울뿐인 임원이나 아무 일도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한 담당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힘없는 '미기총'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21차 총회를 기해 거듭나려고 힘쓰는 '미기총'을 위해 필자도 물론 미주 한인 교계가 기도하자.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영적 힘을 갖게 해 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 저들이 미주 교계의 다음 세대를 이끌 차세대 리더십들에게 영적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2세대도 1세대의 아름다운 교회연합의 모습을 닮아 갈 수 있도록 그 지경을 기경하는 미기총이 되기를. 다 함께 저들을 위해 기도하자.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고 있는 미주 한인 선교사들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방 구원의 비전을 이루게 해 달라고.

미주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의 미기총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행복을 위해 습관화가 필요한 활동들!

습관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나 습관은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 제인 워들 (Dr. Jane Wardle) 교수팀은 습관화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 66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습관화되어야 행복할까요?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행복학자들은 행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두 종류의 활동들을 제시합니다. 행복을 고양하는 활동들은 인지적인 활동들(Cognitive activities)과 행위적인 활동들(Behavioral activities)입니다. 인지적 활동들은 감사하기, 참회하기, 용서하기, 사랑하기, 긍정적인 맘먹기 등등입니다. 행위적 활동은 미소짓기, 춤추기, 운동하기 그리고 기부하기 등등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행복을 고양시키는 활동들입니다.

마음의 인지적 활동들 즉 행복을 작성하고, 감사하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몸의 행위적 활동들 즉 웃기, 박수치기, 춤추기, 봉사하기, 운동하기, 여행하기 등을 실천하면 몸이 행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 촉진을 위해 습관화가 필요한 행동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행복을 작성하기! 우리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삶의 의무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우리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울한 마음,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행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행복을 결단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만드시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빙그레 미소 짓기! 미소를 지으면 뇌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하려면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미소는 자신의 뇌를 기쁘게 마취하는 마취제입니다. 기쁘지 않아도 미소를 짓다 보면 뇌는 기쁜 상태로 해석합니다. 미소를 연습해야 합니다. 미소가 익숙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얼굴은 미소 가득한 얼굴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불편한 상황을 만날 때 미소를 지으세요. 당신이 미소 지으면 행복이 미소 지으며 다가옵니다.

둘째, 긍정적 마음 갖기! 행복하려면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물과 현상 그리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현상과 관계와 사람과 사물의 밝은 면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한 삶에 긍정적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낙관적인 태도와 긍정적 마음가짐은 행복의 왕도(Royal Road)입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습관화했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 갖기! 감사가 고상한 인격과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감사는 행복의 문입니다. 행복하려면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키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행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불행의 제조제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들에서 감사를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넷째, 기쁜 노래 부르기! 노래는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음악이 육체와 영혼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음악치료가 주목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 습관이 중요합니다. 미 8군에서 만난 미군 군종목사는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를 만나면 늘 행복했습니다. 삶의 고갯길을 노래로 넘어가면 인생은

여섯째, 응원하는 삶이 풍요로운 삶입니다. 박수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지만 이웃의 삶을 응원하는 박수는 더 유익합니다. 기쁨으로 응원의 박수를 치면 응원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전에 응원하는 자신이 흐트해지고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행복을 위해 이웃을 향해 진심으로 응원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즐겁게 땀을 내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하며 땀을 내면 긍정적 호르몬이 분비되어 행복감이 상승합니다. 운동하며 땀을 내는 것은 마음과 육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스포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건강한 노동으로 땀을 내는 것도 행복감을 높입니다. 땀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습관화가 필요한 활동들은 행복을 촉진시키는 활동들입니다. 앞의 세 활동은 마음의 활동들이고 뒤의 네 활동들은 육체적 활동들입니다. 작은 활동들이 행복을 아울러 개인적인 실천과 습득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집단이나 사회가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행복한 관습과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투찌에 마을에 희망을!

세계 최빈국 아이티의 빈민촌 투찌에(Truitier) 마을! 쓰레기 마을에 형성된 투찌에 마을!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투찌에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팔찌를 판매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아동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팔찌 판매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노동비, 재료비, 탁송비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 투찌에 학교 건립과 투찌에 주민 생활 개선에 사용 될 것입니다. 투찌에 학교건물은 주일에는 교회로, 야간에는 장년 교양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팔찌 1개 \$20
30개 이상 주문시
우편 등으로 배달됩니다.

-문의: World Share USA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아이티 투찌에 마을 학교를 세웁니다!

투찌에 마을 학교 교실을 분양합니다!

- ◎ 6개 교실 1개 강당(교회로 활용), 1개 주방
- ◎ 3,000불 지원으로 교실 1개를 마련합니다.
- ◎ 후원자(기관) 이름으로 교실을 건축합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90010

대표: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LA 연합감리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한인이민교회 역사 포럼은 지역 목회자들과 신학생, 신학교 대표 등이 참석해 오늘의 이민교회를 진단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미주 한인이민교회 위기, 사회적 기능 넘어 영적 센터 돼야

LA 연합감리교회 창립 115주년 기념 한인이민교회 역사 포럼 개최

북미대륙 최초로 세워진 LA 연합 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는 지난 16일, 창립 115주년을 맞아 “미주 이민사회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초창기 한인 이민사와 함께 걸어온 한인교회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인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LA 연합감리교회 주관, 크리스천 위클리(발행인 조명환 목사) 후원으로 LA 한인타운 옹수산에서 진행된 역사포럼에는 이덕주 전 감리교신학대학 교회사 교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김찬희 명예교수, 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 기독교학 옥성득 석좌교수가 나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신학형성에 관하여 70년대 이후 이민교회 발전사 이민 사회 미래와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1903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한 미주 한인기독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며 “그동안 미주 한인 기독교회가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영적 중심의 역할로 나아가 한인 교인들이 한인디아스포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들은 1세대 이민자들의 은퇴와 귀국, 이민자의 감소와 교인들의 고령화, 문화 언어적 세대간 단절 등 미주 한인 교회가 맞은 위기를 공감하며, 교회 갱신과 개혁, 바른 신학과 영성 회복,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인 디아스포라 신학은 “덧발 신학”

첫 발제자로 나선 이덕주 교수는 당시 발간됐던 기독교 신문인 하와이 (포와한인교보)와 샌프란시스코 (대도)를 중심으로 재미 한인 디아스포라 신학을 ‘덧발 신학’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미주 사회에서 한인 교회는 뒷발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며 “1903년 하와이에 첫발을 내디딘 한인 이민자들은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자기 집 정원에 뒷발을 만들었는데, 이 뒷발은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고 고향을 느끼는 문화적 공간이었고, 자기 정체성을 간직하는 공간이자, 손자 손녀들과 뒷발을 가꾸며 한인들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공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는 미주 한인들이 모여 고향 음식을 먹으며 모국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현지 적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치유와 소통의 현장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또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초기 이민자들은 애국심과 열정, 성실함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지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교회와 학교를 가장 먼저 세우고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 원칙을 가졌었다”며 “그들은 적극적인 교회의 현실 참여로 애국 운동에 동참해 일본의 침략에 맞서 고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 초기 이민자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도 설명했다.

그는 초기 미주 이민자들은 근면함과 신앙을 바탕으로 서구의 발전된 농업을 배우며, 교회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걸어놓을 정도로 모범적인 이민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미주 한인 이민교회 위기, 사회적 기능 넘어 한인 교민 위한 영적 센터 돼야

1970년대 이후 이민교회에 대해 발제한 김찬희 교수는 미주 한인 이민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넘어 사회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의 30%가 기독교인이었지만, 당시 미국 한인들의 70%가 기독교인이었을 만큼, 교회는 이민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 이민자들을 전도하며, 영적 보금자리와 함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돌봄을 제공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찬희 교수는 이어 “미주 한인 이민교회가 70년대 교회 건축, 80년대의 교회 성장, 90년대 교회 본질 회복을 추구하며 성장했다면, 2000년대 부터 이민인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교세가 기울고 교인들도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민교회 쇠퇴 원인을 ‘신학과 영성 훈련 결여’와 ‘차세대 지도자 양성 실패’로 꼽으며 “미주 한인교회는 교인들의 신학적 소양과 영성훈련에 집중해, 진실된 크리스천 양성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신실한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한인교회 사역은 노년 사역이 확장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한인 전도로 나아가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 교회 미래, 실패한 역사에서 배워야

옥성득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며 기독교의 미래를 내다보기 전에 역사를 돌아볼 것을 조언했다. 그는 한국 기독교는 성장과 쇠퇴가 반복된 역사였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가 쇠퇴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성득 교수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1910년 일제의 탄압 하에 정체기를 맞았고, 1919년 3.1 운동 전후로 반 기독교 정책에 따른 극심한 쇠퇴를 겪었다. 옥성득 교수는 이 당시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으로 목회자의 영적 부패를 꼽았다.

“한국 교회 1세대는 가난했지만 1930년도 2세대는 신분상승과 더불어 소수의 목회자가 대형교회를 다스리는 권위적인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전보다 성장했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사라지고 목회자와 장로들이 재물과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도 많아 됩니다.”

옥 교수는 해방과 6.25 전쟁 이후

한국 교회 3세대가 전쟁의 아픔을 딛고 교회를 재건한 1945년부터 2000년까지를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기로 봤다. 그 이후 한국 교회는 다시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맞고 있는 쇠퇴의 원인은 1980-1990년대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는 잔칫집 분위기였습니다. 개혁과 갱신은 뒤로한 채 신학교를 늘리고 교회의 외형적인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이후 목회자의 세속적 타락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신학교 정원 축소, 주일학교 감소 등 한국 교회는 정체를 지나 쇠퇴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옥 교수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계속 쇠퇴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한국교회가 성장과 쇠퇴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일과 같은 한국 사회를 크게 움직이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한국 교회 개혁과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욱 기자



한인이민교회 역사 포럼에서 발제한 이종우 박사, 이덕주 박사, 김찬희 박사, 옥성득 박사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정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교회협의회(CKCA) 성명서,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김희성담-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성호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9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목회자이기에 꺼낼 수 없었던 상처... 주님! 제가 목회자 아버지입니다”

제1기 서북미 목회자 아버지학교 성료



제 1기 서북미 목회자 아버지학교 수료자

서북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개설된 제1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회복과 성숙의 은혜가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진행된 ‘서북미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는 교단과 교파를 넘어 서북미 지역에서 사역하는 일선에서 사역하는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참된 ‘아버지의 사명’과 ‘아버지의 영성’을 배웠다.

교육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목회자이기에 어디에서도 꺼낼 수 없었던 상처를 서로 나누고, 목회에만 온 힘을 쏟느라 돌보지 못했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하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교회 개척으로 헌신과 봉사만 했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남겨진 자녀들을 돌보며 겪었던 아픔과 시련을 듣고 일어난 한 목회자 아버지의 고백은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셋째 날 강사로 나선 권 준牧사는 “이번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특별히 동역자들과 함께 나는 이야기들이 가슴을 울렸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며 형제가 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돼 감사하다”며 “아버지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법론적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천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1995년도 서울 은누리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당시, 교인은 많

았지만 성도는 적은 것 같았고,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많은데 진정한 아버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았다”며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아버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고, 건강한 가정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각오로 아버지학교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권 목사는 이어 “아버지학교는 분명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를 통해 수많은 가정 회복의 역사를 쓰고 있다”며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제1기 ‘서북미 목회자 아버지 학교’ 총괄 진행을 맡았던 이병일 목사는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목회자들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짊어져야만 했던 상처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이병일 목사는 이어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하고, 서북미 지역 2기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기섭 장로(형제교회)는 “제1기 졸업생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목회자가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한다”며 “교육기간 동안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형제라는 호칭 아래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겼던 감동적인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풀 원 기자

뉴욕 두 연합감리교회, 고국 시각장애인들에 ‘빛’ 선물

UMC주나목한인교회, 후러싱제일교회 각막이식수술비 후원



뉴욕주나목교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막이식수술비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러싱제일교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막이식수술비 3,000달러를 후원했다.

미국 동부지역 연합감리교회인 베이사이드 주님은나의목자교회(주나목교회, 담임 문정웅 목사)와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가 고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했다.

미국 교회인 Bayside United Methodist Church와 지난 상반기에 개최한 바자회와 현금으로 시각장애인 각막이식수술비를 지원한 주나목교회 문정웅 목사는 “시각 장애인들이 빛을 보고 시력이 회복되어 성경을 읽게 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전도되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희망한다”며 “미국인교회와 한인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6년도부터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를 지원해오고 있는 후러싱제일교회는 올해는 8월의 첫주일을 맞아 지난 4일, 각막이식수술비 3,000달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목사는 “고국의 동포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함으로써 후러싱제일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감사하고 미국의 많은 UMC소속교회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으며, “특별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의 해를 기념하여 100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광명을 찾아주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인준기관이며, 보건복지부 장기이식등록기관인 (사)생명 나누는 사람들은 현재 LA부터 뉴욕과 워싱턴 및 캐나다 북동부 지역 등을 방문하여 미주지역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미국내 KMC와 UMC교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생명나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주고자하는 후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신의 기자

교회 소식

LA 지역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도 이인2세를 확약하며, 이인1가정을 치료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ilen 코너) T. (213)386-2233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해 위치)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620-7240, Email: lasehil@2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성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ehan.com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cv.webchurch.kr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빛,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신 초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등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우영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오순절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저녁성)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 매일 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성: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녁성: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3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망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연회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절연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MP채널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8월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9월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후 7:45
186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Tel: (818) 363-5887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연세대 '인권 강좌' 논란, 교무처장에게 직접 물었다

“시범운영하며 수정·보완… 모든 게 열려 있다”



온라인 '인권 강좌' 개설 소식을 알리던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연세대 홈페이지 캡처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가 ‘국내 최초로’ 개설한다는 온라인 ‘인권 강좌’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인권과 연세정신’이라는 이름의 이 강좌는 ‘인권과 젠더(성평등)’ ‘인권과 난민’ 등 총 13개 주제로 구성된다. 강좌는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 기초 교과목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특히 ‘인권과 젠더(성평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생물학적 남녀를 뜻하는 ‘섹스(Sex)와 달리 ‘젠더(Gender)는 트랜스젠더처럼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성평등’도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때문에 “故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한 연세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용어들을 인권과 연관지어 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학교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인권강좌 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개발 회의를 주관해 왔다”는 연세대 손영종 교무처장을 19일 전화로 인터뷰 했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이번 ‘인권 강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강좌는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정의, 교육’ 이런 아젠다가 인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인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젠더 강의를 한다든지 난민 강의를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아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인권과 젠더’ 또는 ‘인권과 난민’ 안에, 난민에 대해서 깊이 강의하고 공부한다든지, 젠더에 대해서 공부하고 논의한다든지 이런 주제가 아니다.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인권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 인권의 주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다. ‘인권과 역사’라고 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인권과 사회’라고 해서 사회를 공부하고, ‘인권과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을 공부한다는 게 아니다.”

-그럼 각각의 강좌는 서로 어떻게 구분되나? 즉 ‘인권과 젠더’ 강좌가 ‘젠더’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인권과 젠더’는 다른 인권 강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전화로, 한 두마디로 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나는 그냥 이 교과목의 전체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인권 강좌에 대한) 우리의 초점과 (이 강좌를 우려하는)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의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우려는 이해는 한다. 그러나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아니다.”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모임(연대사모)이 지난 13일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젠더 ‘난민’ 등과 관련된 ‘인권 강좌’를 비판했다.

-우려를 이해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젠더’ 나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뺄 수는 없나?

“그래서 이번에 이 교과목을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미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다. (시범운영을) 하다보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교내 교수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실 것이다. 그럼 그것들을 취합해 수정·보완할 것이다.”

-그럼 내년 필수과목으로 편성할 때, 그런 용어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

“뒤편 말씀드릴 수는 없다. 모든 게 다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 ‘젠더’ 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트랜스젠더나 동성애 등까지 포함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 하자. 지금은 교과목 운영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과 강좌 운영하고는 약간의 관계는 있지만,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각자 생각의 관점이 다른 분들이 많고 다양한 계층의 건강한 사회다.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귀로 듣고 있다. (인권 강좌를) 시범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분석하고 수정·보완할 것이다. 원칙을 말씀 드리면, 연세대는 기독교 학교인데 (인권 강좌가) 기독교 정신을 핵심 가치로 한다는 점이다.”

-연세대의 기독교 정신에 있어 동성애는 어떤 의미인가?

“그런 이야기는 따로 하자. 그 이야기를 전화로 하면 한 두 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 간단한 주제는 아닌 것 같다.”

-왜 ‘젠더’ 라고 이름을 붙인 건가? 연세대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연세대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중동권 학생들도 유학을 많이 와 있다. 그걸 인식하고 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학교 안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걸 정확히 인지하는 게 먼저다. (그걸) 인지하고 있다.”

-인권 강좌의 기획 단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나?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결코 아니다.”

-내년 필수과목 지정은 이미 정해진 사안인가?

“우리가 공개한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의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김진영 기자

팀 켈러 목사 “아이들에게 교리문답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방법이나 내용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강조



팀 켈러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한국 복음연합(TGC Korea)은 최근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전한 팀 켈러(Tim Keller) 목사의 강의를 소개했다.

팀 켈러 목사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리문답은 잘 쓰여져 있다. 이는 교회가 중세 문화에서 자란 이들을 크리스천이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 쓴 것”이라며 말씀을 열었다.

그는 “특히 로마가톨릭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은혜와 칭의와 같은 개신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교리문답”이라고 설명했다.

켈러 목사는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오늘날의 세속 문화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성경의 말씀대로 형성되도록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방식에 관해 켈러 목사는 “교리문답은 교리를 외우게 하는 것이고, 외우는 일은 항상 목상으로 인도한다. 암기한다는 말을 영어로 마음으로 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보통 암기를 할 때 그것을 조망하고 목상하며 깊이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교리문

답을 배우는 일은 암기와 목상을 하게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교리문답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로,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교리에 대한 어떤 범주의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6세의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교리문답을 가르치면 그것을 잘 모른다. 하나님, 성령, 구원, 죄와 같은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경험과 교육, 설교 등을 통해 이 범주의 틀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교리 안에서 살게 되고, 그 범주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켈러 목사는 마지막으로 교리문답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공동체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의문답을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을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방법이나 내용면에서 모두 오늘날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홍콩 시위자들은 그저 자유를 추구하는 것”

美 폼페이오 장관, 언론과 인터뷰서 밝혀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미 국무부 제공

미국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 중국의 홍콩에 대한 ‘1국가 2체제’ 약속 준수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20일 CNBC에 출연해 중국 정부가 폭력적으로 홍콩 시위대를 탄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홍콩 시위가 평화적 방법으로 결론나길 희망한다”며 “그것이 중국과 미국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홍콩 시위자들은 그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들은 중국에 대해 오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홍콩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은 홍콩을 존중하는 1국가 2체제 약속”이라며 “중국은 홍콩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들(중국)이 폭력을 행사하면 (무역) 합의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게 또 하나의 텐안먼 광장이라면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중국의 무력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19일 한 행사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하도록 하려면, 중국은 (1국가 2체제) 약속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홍콩에서 폭력적인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협상하기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강해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수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담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T.O.T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백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평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침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화교(화)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복음화예배 오전 8: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침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음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선물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향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찬양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애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복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중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 장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애)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중개입 우려... 다시 "자유" 외친 170만 홍콩 시민들

18일 빅토리아공원 일대서 '비폭력 평화시위'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홍콩 빅토리아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홍콩 시민들. ©MBC뉴스 보도화면 캡처

최대 170만 명(추치 측 추산)의 홍콩 시민들이 폭우를 뚫고 다시 "자유"를 외치며 비폭력 평화시위에 나섰다. 지난 6월 4일(100만 명)과 15일(200만 명)에 이어 2달여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18일 오후(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공원 일대에서 "송환법 철회"(Withdraw the bill) "홍콩의 자유"(Free HongKong)라는 구호를 부르짖었고, 일부 시민들은 홍콩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그림의 피켓을 들고도 했다.

이날 시위가 진행된 홍콩 빅토리아공원 일대는 앞서 중국의 무장군경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진 광둥성 선전만에서 불과 10분 거리인 곳이다. 중국군 개입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이 평화시위를 통해 자유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중국에 보여주자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홍콩 시민들은 크게 다섯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송환법 철회 △시위대 '폭도' 명령 철회 △시위 체포자 석방 △독립 조사기구 설립 △보통선거 실시다.

이처럼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것은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이다. 지난해 2월 한 홍콩인 20대 남성

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피한 '치정(癡情)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던 홍콩은 자국민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대만으로 넘길 수 없었다. 그렇다고 홍콩이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도 없었다.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만 처벌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여론이 고조되자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 법안'을 마련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자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됐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되면, 중국이 반중 인사를 송환하는 악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치로 지난 6월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특히 홍콩 시위에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홍콩 시위대들이 복음성가인 '싱 할렐루야 투 더 로드'(Sing Hallelujah to the Lord)를 합창할 정도로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진영 기자

美 국무부, 北 여행금지조치 1년 더 연장기로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행금지 조치를 1년 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장기 구금과 체포의 심각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여행 금지 조치는 구호단체의 요원이나 언론인 등이 일회성 특별 허가를 통해 북한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017년 이 조치가 시행된 후 두 번째로 연장됨에 따라 2020년 8월 31일까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유지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한국오픈도어, 공산권 현장 파송사역자 모집

"공산권 선교에 헌신 된 분들의 지원 요청"



자전거 타는 북한 주민들. ©한국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공산권 선교 현장에 헌신할 현장 사역자를 모집한다.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되며,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여성 사역 1명, 일반 사역 1명이다.

지원 자격은 교회 및 노회(지방회)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 결격사유가 없고, 교육부 인가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학위(M.Div) 소지자여야 한다. 중국어 가능자

는 우대하며, 여성 사역은 여성만 지원할 수 있고 독신자를 우대한다. 연령은 45세 미만이지만 예외도 가능하다. 선교사로 파견될 경우 선교회에서 생활비 및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협의하면 된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고 특히 공산권 선교에 헌신 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문의 www.opendoors.or.kr, info@opendoors.or.kr).

이지희 기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은 주로 보이는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에서는 상징과 그림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상징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백배나 거두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 주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그 축복은 바로 천국에 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팔복의 말씀이 신약 복의 핵심인데 그것은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또 구약은 보이는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신성한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서 특별한 곳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하셨고(신 12:11) 오직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신 12:13-14). 바로 그곳이 구약에서의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성전과 관련하여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합니다.

AD 1세기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씩 제물로 드렸고, 안식일에는 두 마리씩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삭,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전절, 부림절, 대속죄일에는 많은 짐승

을 제물로 드렸습니다(참고. 날, 달,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님, 갈 4:10-11).

무엇보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유월절, 2:13; 11:55; 명절, 5:1; 초막절 7:10; 수전절, 10:22), 요한은 명절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둘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실제 안에서'의 예배를 제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 4:23).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주제이지만 다른 중요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볼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볼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중하면 고요해집니다!

성경 암송과 말씀 묵상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집중력입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한 절이나 한 장의 말씀을 선택한 후에 집중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암송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주 기억하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택한 말씀이 우리 혀에 새겨지고, 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집중의 비결은 선택에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요 15:2하). 이 말씀 속에 "깨끗하게"하신다는 뜻은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전략가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후에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중하십시오. 산만함은 집중의 적입니다. 산만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산만함은 성취의 장애물입니다. 위대한 성취는 집중의 결과입니다. 위대한 일에 집중할 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면 집중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중하기 원한다면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의 노예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십시오. 스마트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사용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글 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은 탁월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탁월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10년 또는 1만 시간을 연습한 사람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에 장기적으로 집중할 때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탁월함의 비밀은 집중력에 있습니다. 대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해서 연습하는 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집중력과 함께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물을 파기 위해 깊이 내려갔다 할지라도 우물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포기한다면 그 노력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우물을 파되,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합니다.

집중하면 몰입하게 됩니다. 몰입의 경지는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일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는 것이 고요함입니다. 내면의 평화입니다. 몰입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자기 성찰은 자기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지혜 중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잠시 잊을 만큼 좋은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되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잊을 만큼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중은 능력입니다. 집중력을 키우는 길은 조금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포기하고 싶을 때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바위를 뚫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선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십시오. 집중은 결과를 낳습니다. 집중하면 탁월해집니다. 집중하면 고요해집니다. 집중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행빙

아리조나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 문제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 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역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담임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른속도로 좋습니다.
담임수치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담임수치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담임수치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도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담임수치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담임수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혈당이 천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식후 혈당을 가라앉히고 있는 가시적인 도구인 프로지 "프로지" 역제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지 역제는 담임수치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유선 채널에서 다룬 것을 여러분도 보셨다면, 그 예전과 비교하여 혈당 조절 및 혈당관리수치를 가장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 ▶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이연연?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의 특별한 점
프로지 역제의 특별한 점은 높은 혈당 수치를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의 ZINC-MENADIONE 연구들은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프로지 역제를 복용하는 이유는 높은 혈당 수치로 인한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아시나요?
담임수치, 혈당, 혈당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담임수치를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프로지는 시작입니다.

담임수치를 1%만 줄여도
43%의 혈당 위험을 줄여줍니다.
37%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21%의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14%의 시력 손실 위험을 줄여줍니다.
12%의 신장 질환 위험을 줄여줍니다.

1병 \$69 + Tax
3병 \$180 + Tax
6병 \$350 + Tax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prozusa@prozusa.com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스텝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예배
 교회보고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한인타운 한의원

크기 **금매 1,150 sf**

문의 : (213)381-7575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게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9월

대추도 따고 BBQ파티하러 출발~
대추나무 가을 여행

실버우드 레이크 보트타기 & 대추 따라가기
 실버우드 레이크(페달 보트 타기) & 대추농장(BBQ 파티 & 대추따기)

\$99 9/21(토) 당일
 페달 보트 포함

10월

추억만들기 단풍여행 **1박 2일**

비좁 단풍

Sabrina Lake
 Mammoth Lakes (숙박)
 June Lake

\$199 10/10(목)
 1박 2일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Tel.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천 오백만원 보험가입

“기도만이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기사 건져내”

한교연, ‘광복 74주년·건국 71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14일 오후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에서 교계 인사와 성도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74주년·건국 71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맡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이 돌의 뜻을 설명하라’(여호수아 4:19-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 목사는 “74년 전 8.15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해주시고, 71년 전 8.15는 오늘을 위한 날이고, 71년 전 8.15는 오늘을 위한 날이라는 나라의 세워진 날”이라며 “이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

엘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 흘린 눈물과 탄식, 신음을 들으시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사용해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후세에까지 바른 역사관으로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또 “오늘 대한민국은 또 다시 안보위기, 경제위기 속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뚝어 앞드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높이 올라갈 때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닮신’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며, 기도만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광복 74주년 메시지를 낭독했으며, 송태섭 목사(한장총 대표회장)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기쁨홍보실장 김훈 장로가 광고를 전한 후 순서자와 성도들 모두가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김진영 기자

김진홍 목사 “김일성 동상 철거 장대현교회 재건하자”

김진홍 목사(두레교회 원로)가 “북한에 수용소가 18군데 있는데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 그 중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며 “성경 가진 걸로 수용소 가고, 예배 봤다고 현장에서 잡혀 가고, 그 사람들 우리가 해방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목사는 지난 18일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시편 33:10-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가면 모란봉 종턱에 있는 한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찾아가는 곳이 있다. 조금 걸어가면 있는 김일성 동상”이라며 “평양 시가지에 내다보게 크게 지었다. 갈 때마다 그 주변을 몇 바퀴 돌면서 ‘뱃줄을 어디에 걸어 당기면 (동상이) 넘어질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장대현교회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장대현교회를 철거내고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철거하고 동상을 세워서 되겠나? 하나님을 모실 자리에 동상이 있어서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장대현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1907년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남전도회 도사경회가 여기서 열렸다. 지도자가 김선주 장로였다. 그곳에 성령이 임재해서서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며 “그 뜻깊은 교회를 철거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으니 (동상을) 철거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확신한다. 그 평양 장대현교회를 재건해서 준공예배를 드릴 때 거기 가서 축도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 내 꿈이 이뤄질 줄 믿는다”고 했다.

김 목사는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 교회가 2,830개였다. (그런데) 다 없어졌다. 하나하나 재건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가 성경 위에 세운 나

라, 성서한국을 이뤄서 성경의 진리로 강력한 나라를 세워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독교인의 ‘역사의식’도 강조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역사의식”이라며 “마침 지난주가 해방 74주년, 건국 71주년을 맞는 주일이었다. 참 소중한 우리들의 역사적인 과정이다. 해방과 건국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70여 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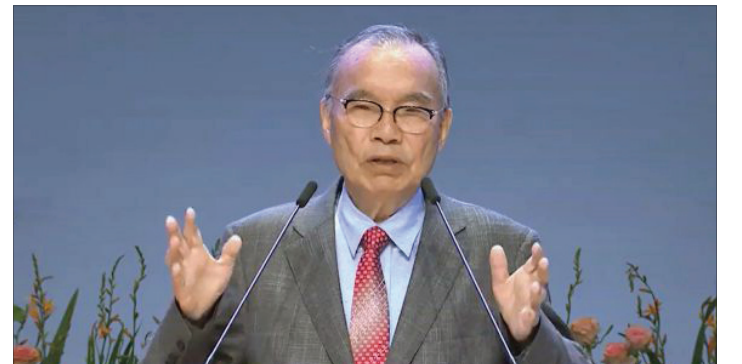
그러면서 김 목사는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가 기도했던 사실 △1948년 건국 후 우여곡절 끝에 파리 유엔총회가 대한민국 건국을 승인했던 것 △소련 대표의 불참으로 유엔이 6.25 전쟁 참전을 결의했던 역사 등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 역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과 전쟁, 갈등의 역사였다. 그 때마다 해양세력이 승리했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래로 참 감사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서 해양세력 편에 섰다”고도 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중심으로 대륙세력 편에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택했다”며 “(해방 이후) 74년이 된 지금, 해양세력 편에 섰던 대한민국이 대륙세력 편에 섰던 북한에 완전히 체제에서 승리했다. 북한 가서 보면 안다”고 했다.

이윤러 김 목사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 민족의 미래이고 한국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조국의 미래와 아시아의 복음화에 사명을 가졌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김진홍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영상 캡처

김동호 목사 반일관련 “이익과 손해보다 때론 ‘자존심’ 더 중요”



김동호 목사

함양 치료 중인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교회 전 대표)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근 반일 운동에 대해 “이익과 손해보다 때로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글을 15일 SNS에 남겼다.

김동호 목사는 “오늘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지 74주년 되는 날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힘으로 빼앗아 식민지 삼고 36년을 통치했다. 나라가 마치 강패 같았다”며 “세상이 바뀌어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요즘 아베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강패 국가의 DNA는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제 버릇 개 못쳤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힘으로 쳐들어와 밀어붙이면 아직도 우리나라 하나쯤은 문제 없이 굴복시키고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언론들이 ‘경제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다. 보복이란 피해자가 하는 일을 의미한다. 일본은 우리에게 보복할 만한 피해를 우리에게서 입은 적이 없다”며 “보복은 무슨 보복? 경제 침탈이요, 경제 도발이지”라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한 50년 자기들보다 뒤진 줄 알았는데, 턱말까지 따라 붙고 곧 자기들을 추월할 것처럼 보이니 지기 싫어서 다급해서 부린 꼼수”라며 “아직도 자기들이 힘이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숨통을 끊어 보겠다고 밀어붙인 꼼수 중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동호 목사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힘은 아직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우리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무릎 꿇게 할 힘은 없다는 건 아마 모를 것”이라며 “그 교만함과 오만함에서 오는 치명적인 오판과 착각”이라며 “일본, 너희들은 그 치명적인 오판과 착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를 묻는 이해 안 가는 조선 사

람들이 있는 것 같다. 누가 더 손해를 보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법이다. 그건 ‘자존심’”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자존심이 밥 먹여 주냐?”를 묻는다면, 너희들은 ‘밥만 먹으면 사냐?’ 되물어주고 싶다”며 “피해가 물론 있을 것이다. 손해를 좀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IMF를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단기간에 경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낸 민족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참에 눈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일본을 탈피하지 못하고 종속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 버리고 재팬 프리,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강패 근성, 강패 DNA, 그 못된 버르장머리에 한 방 제대로 먹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

이대웅 기자

모 집 과 정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상담학사
- 기독교육학사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상담학석사
- 기독교육학석사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상담학철학박사
- 기독교육학박사



동역자의 몫

누가복음 15:20-32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누가복음 15:20-32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 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 하더라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고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인간은 나면서부터 영적소속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속을 행하기 위해 타인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유혹과 미끼, 율무에 걸려 이용당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인간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 인간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신 앙인격을 변화 받게 하시어 하나님과 동역자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고, 구원 얻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옛 습관은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되심으로 구속받은 성도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역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두 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밑에 오래 있지도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여유있고 풍족한 생활에 세상 분별없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아버지의 범아래서 벗어나 독립하여 자기 인생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하는

둘째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선뜻 재산을 나눠 내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간청에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나눠주고 내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20절 말씀에 “아직도 상거가 면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날마다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생각처럼 재물을 얻어 아버지로부터 해방된 마음으로 화려하게만 보이는 죄악 된 세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되어 그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함께 허랑방탕했던 자들도 그를 외면했고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는 더욱 궁핍하게 되고 결국 돼지 치는 일을 얻게 되지만 그 일 또한 쉽지 않았습니 다. 먹을 것도 부족하여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주린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후회를 했지만 그는 돌아갈 염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았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여기서 굶어 죽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눅15:18-19)”고 작정하고 오로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입을 맞추십니다. 이것은 제멋대로 살고 싶어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실패하여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죽음에 직면해서 몸부림치는 탕자인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목욕을 시키는 것은 그 죄를 씻기는 것을 의미하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은 전 날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리우는 것이 되며,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아버지의 조건에 함께 동참하는 자격이 주어지 것이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들의 신분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다시금 예전의 조건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 받았습니 다.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날은 작은 아들에게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날

이었습니다.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 아들은 어찌된 일인지 몰라 종에게 물으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고 답합니다. 이 대답에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것은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았던 작은 아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큰 아들을 들어오라 권하니 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고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눅15:29-30)”하며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향해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법을 따라,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어질 때는 그 아들이 곧 아버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동역자의 몫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항상 육신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은 입술로만 믿음시켜 살아가고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동역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기대 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동역자로서의 헌신과 봉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역지로 얻어

내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없앴습니다. 그는 아버지 중심으로 사용할 줄 몰랐고, 자기중심적으로 허비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있어 재물은 있어서는 안될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재물로 인하여 범죄하고 허황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뿌리치고 하늘 뜻대로 살되 아버지의 동역자로서 지혜롭고 헌신적으로 살아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몫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하게 속아 살지 마십시오. 작은 아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큰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뜻을 좇아 살았을 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아들도 누가복음 15:29에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작은 아들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 섬기자는 태도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불들어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는 말씀으로 비로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의 입장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는 길은 아버지 앞에 돌아가 회개함으로 의로워겠다는 인정 받고, 성령의 보증인 자녀된 신분을 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사람의 앞날은 하나님의 조건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펙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라인
[4회 \$999] [8회 \$999]

- 탈모
- 치질
- 감상선
-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궁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지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위장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앓플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감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땀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배배는 숙변 제거 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와 아드모어)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신이 내린 항암식품!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초환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원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 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나트륨, 칼슘)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미시량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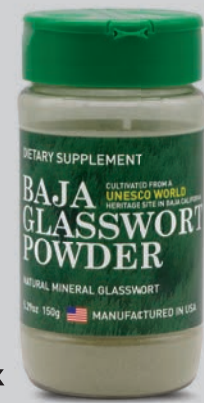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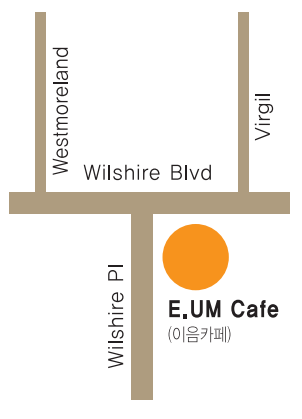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 (213)434-1170, (213)605-2772

www.hempbioussa.com hempbioussa@gmail.com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65
Stand X-Banner



\$160
(디자인 포함)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edia@gmail.com

Deep-Rooted Spiritual Conference

2019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

날짜: 9월 20-21일 • 장소: 새생명비전교회



Gary Thomas
베스트셀러 영성작가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강준민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John Coe
탈봇신학교 영성신학 교수



Howard Baker
덴버신학교 영성신학 교수



Siang Yang Tan
풀러신학교 심리학 교수



Benjamin Shin
탈봇신학교 교수

- 등록: www.ispiritualconference.com
- 주최: 새생명비전교회 (www.nlvc.org)
- 후원: 미주 두란도서원, 미주 CGNTV



조봉희
목동 지구촌교회 담임



강찬기
한국 레노바레 대표



Stephen Morrison
미우주항공연구소 연구원